

챔피언의 벽 높았다…광주도시공사, 개막전서 SK에 무릎



24-32로 패…실책 속에서도 신인 데뷔골 등 희망
오세일 감독 “경기 거듭할수록 선수들 나아질 것”

광주도시공사는
핸드볼 H리그 개
막전에서 디펜딩
챔피언 SK슈가글
라이더즈의 벽을

넘지 못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10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 페어 2025-2026 핸드볼 H리그 여자부 SK슈가글라이더즈와의 개막전에서 24-32(9-15 15-17)로 패했다.

전반 1분 SK 김하경이 먼저 득점을 성공시켰고, 5분에는 이효진이 9m 골을 성공시키면서 도시공사의 시즌 첫 득점을 신고했다.

이후 한 골씩 주고 받는 팽팽한 접전이 전개됐지만 전반 15분 SK 김하경의 속공으로 점수가 5-8로 벌어졌다.

광주도시공사 김지현과 김정이 7m 드로를 연달아 성공시키며 7-8, 한 골차로 추격을 했지만 중앙 공략 과정에서 실책이 겹치며 흐름이 급격히 기울었다.

중장을 공략하려던 터너버가 잇따르면서 수비가 흔들렸고, SK 김하경의 스틸 이후 윤예진의 속공으로 도시공사가 연달아 점수를 내줬다.

도시공사 김지현의 마지막 공격이 유효 슈팅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SK의 속공에 잇따라 실점하며 9-

-15, 6골 차 뒤진 채로 전반을 마쳤다.

후반 시작과 함께 광주도시공사는 선공으로 분위기 반전을 노렸다.

하지만 수비 라인이 제때 내려오지 못한 틈을 SK 윤예진이 광주도로 공사 진영을 파고들면서 9-17까지 점수 차가 벌어졌다.

후반 2분 중앙이 막히자 측면을 활용해 험지선이 득점을 성공했고, 강주빈의 돌파로 얻은 7m 드로를 김지현이 마무리하며 11-18로 추격을 이어갔다.

후반 4분 골키퍼 이민지도 SK 최지혜의 7m 드로를 막아내는 등 선방을 펼쳤지만 실책이 반복되며 흐름은 다시 SK 쪽으로 넘어갔다.

이효진·연지현의 무리한 패스가 끊기며 속공을 허용했고, SK 윤예진과 송지은이 중거리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23-15까지 달아났다.

도시공사는 이민지 골키퍼의 선방을 발판 삼아 김지현의 미들-속공으로 득점을 연결하는 등 연속 득점을 만들며 19-25, 6점차 따라붙으며 경기 중반 추격 흐름을 뒀다.

하지만 수비 라인이 무너지면서 반전을 이루지 못하고, 경기는 24-32로 마무리됐다.

아쉬운 패배에도 경기 막판 신인들이 데뷔골로 의미 있는 순간을 남겼다.

후반 25분 투입된 윤별이 7m 드로 기회를 득점

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했지만 1분 뒤 최연아가 7m 드로를 성공했다.

또 후반 29분 박소망이 투입돼 경기 종료 직전 9m 득점을 만들면서 두 신인이 데뷔골을 기록했다.

도시공사는 이날 강주빈이 5골 5도움으로 최다 득점을 올렸고, 김지현과 연지현이 각각 4골을 보탰다.

골키퍼 이민지는 11세이브로 분전했지만 경기 내내 이어진 실책들로 끝내 점수 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개막전을 치른 오세일 감독은 “새로 합류한 선수들이 많아 보니 손발이 아직 맞지 않아 미스가 많이 나왔다”고 돌아본 뒤 “아직까지는 새로운 조합을 시도하는 과정이라 미스가 많아 보이는 것이다. 경기를 치를 수록 선수들 호흡이 맞으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감독은 신인 기용에 대해서는 “어린 선수들에 게 경험을 쌓을 기회를 계속 주려고 한다”며 “작년 보다 선수층이 두터워져 선수들을 돌려쓸 여유가 있다. 장기 레이스인 만큼 한 선수가 한 경기를 풀고 뛰는 건 무리라고 판단이 됐기에 체력 안배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 경기에 대해서는 “16일 (대구전)을 앞두고 오늘 대구전 경기를 먼저 보면서 분석할 예정이다. 대구는 멤버 변화가 거의 없어 조직력이 더 좋을 것이다”라며 “지난해에도 도시공사가 대구에는 크게 밀리지 않았다. 다음 경기에서는 승리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수비 라인이 무너지면서 반전을 이루지 못하고, 경기는 24-32로 마무리됐다.

아쉬운 패배에도 경기 막판 신인들이 데뷔골로

의미 있는 순간을 남겼다.

후반 25분 투입된 윤별이 7m 드로 기회를 득점

/광명=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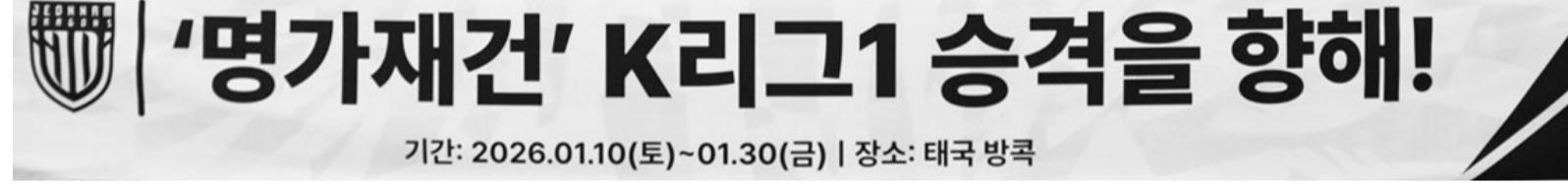


지난 10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 페어 2025-2026 핸드볼 H리그 여자부 SK슈가글라이더즈와의 개막전에서 광주도시공사 김서진이 윙플레이를 하고 있다.

〈핸드볼 연맹 제공〉



2026시즌 전남드래곤즈 동계훈련



기간: 2026.01.10(토)~01.30(금) | 장소: 태국 방콕

전남드래곤즈 선수단이 지난 10일 2차 동계훈련지인 태국 방콕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전남드래곤즈 제공〉

전남드래곤즈, 태국서 ‘승격 담금질’…박동혁호 본격 출항

“최대 4팀 승격, 반드시 기회 잡겠다”…체력·전술·조직력 점검

전남드래곤즈가 ‘승격’을 위한 본격적인 담금질을 시작한다.

박동혁 감독이 이끄는 전남 선수단이 10일 2차 동계훈련을 위해 태국 방콕으로 떠났다.

선수단은 앞서 지난 3일 광양에 소집돼 1차 훈련을 소화했다. 히트 훈련을 위한 위밀업에 나선 선수단은 지난 6일에는 순천팔마종합운동장에서 차의과대학 연구진과 함께 첫연연치 검사를 진행했다. 선수단의 체력 수준과 유산소 능력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전남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수별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방콕에 동계훈련 캠프를 차린 전남은 11일부터 체력 훈련을 중심으로 컨디션 조율에 나선다. 기초 체력 강화에 집중해 컨디션을 끌어올린 선수단은 이후 전술훈련과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준비에 나서고, 조직력을 끌어올리게 된다.

새로 전남의 지휘봉을 든 박동혁 감독은 방콕에

서 선수들 개별 역량을 극대화해 팬들에게 ‘신바람 축구’를 선보이겠다는 각오다.

박동혁 감독은 “지난 시즌 전남은 발디비아, 호남 등 외국인 선수들을 비롯해 하남, 정지용 등 다양한 공격 자원을 바탕으로 강한 공격력을 보여줬지만,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면서 승리로 연결하지 못한 경기가 많았다”며 “동계훈련 기간 조직적인 수비를 구축하고, 각 선수의 장점을 극대화해 팬들께 신나는 축구를 보여드겠다”고 밝혔다.

내년 시즌 K리그1 확대에 따라 최대 4개 팀이 승격할 수 있는 만큼 ‘기회의 시즌’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박동혁 감독은 “최대 4팀이 승격할 수 있는 이번

시즌은 분명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K리그 1 승격을 이뤄 팬들께 기쁨을 드리고, 전남이 명문 구단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승격 목표 달성을 다짐했다.

아산무궁화FC 시절 박동혁 감독과 우승을 함께 했던 ‘임시주장’ 최봉진은 “감독님과 다시 만나게 돼 기쁘다. 팀의 최고참으로서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방콕에서 시즌 준비에 속도를 내는 선수단은 오는 30일 2차 동계훈련을 마치고 광양으로 복귀한다. 이후 3차 국내 훈련을 통해 2026 시즌 전력 구성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보 74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10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현대카드 슈퍼매치에서 이탈리아 안니크 신네르가 스페인 카를로스 알카라스를 상대로 경기를 펼치던 중 한 어린이 팬에게 경기를 맡기고 관중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알카라스·신네르 슈퍼매치 뜨거웠다

한국 테니스, 스타 부재 속 유망주 육성 등 숙제로 남아

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1, 2위 선수들이 국내에서 치른 현대카드 슈퍼매치가 한국 테니스 발전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10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현대카드 슈퍼매치 14에서는 카를로스 알카라스(1위·스페인)가 안니크 신네르(2위·이탈리아)를 2-0(7-5 7-6<8-6>)으로 물리쳤다.

2003년생 알카라스와 2001년생 신네르는 앞으로 최소한 10년 이상 세계 남자 테니스계를 이끌어갈 글로벌 스타 플레이어들이다.

전 세계 스포츠계를 통틀어 손꼽히는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둘의 맞대결을 보기 위해 10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는 1만 2000명 팬이 관중석을 가득 메웠다.

경기가 끝난 뒤 같은 전세기로 호주 멜버른으로 향한 알카라스와 신네르는 자신들의 소셜 미디어에 이날 경기 사진과 함께 간단한 인사말을 올리며 짧았던 한국에서의 시간을 추억했다.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들이 한국을 찾으면 빠지지 않는 질문이 이날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도 나왔다.

바로 한국 테니스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법에 대한 조언을 부탁하는 내용이다.

알카라스와 신네르는 호주로 가는 비행기 시간에 키기는 상황에 나온 관련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하지는 못했으나 입을 모아 “오늘 경기를 통해 한국 테니스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을 느꼈다”며 “그런 점에서 앞으로 한국 테니스가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호인 수가 많고, 테니스에 관심이 있는 기업 인들도 적지 않은 만큼 유망주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면 한국 테니스도 세계 무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다. 또 한국 선수는 아니지만 세계적인 ‘톱스타’들이 알카라스, 신네르 경기를 가끼어서 보면서 이들을 ‘룰 모델’로 삼을 어린 선수들의 등장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연합뉴스

2026 시즌 전남드래곤즈 동계훈련

‘명가재건’ K리그1 승격을 향해!

2026.01.10(토)~01.30(금) | 장소: 태국 방콕

2026 시즌 전남드래곤즈 동계훈련

‘명가재건’ K리그1 승격을 향해!

2026.01.10(토)~01.30(금) | 장소: 태국 방콕

2026 시즌 전남드래곤즈 동계훈련

‘명가재건’ K리그1 승격을 향해!

2026.01.10(토)~01.30(금) | 장소: 태국 방콕

2026 시즌 전남드래곤즈 동계훈련

‘명가재건’ K리그1 승격을 향해!

2026.01.10(토)~01.30(금) | 장소: 태국 방콕